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phanage and Normal Children's Affective, Cogni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박 경 옥 · 이 경 님*
동아대학교 가정학 석사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Park, Kyoung Oak · Lee, Kyung Nim*
Master of Home Economics, Donga Univ ·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the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and developmental tendency between Orphanage and Normal Children's affective and cogni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The subjects were 5-year-old (N=64) and 7-year-old (N=64) children. In each group, there were equal number of boys and girls, 128 Children were composed of(male: 32, female: 32) and orphanage Children(male: 32, female: 32).

Feshbach & Roe's child perspective-taking ability test was modified for this study and the test included four facial expression cards and six different stories including three types of affection.

In the procedure of study, after a set of story cards containing one of three affective types, the subject was asked to retell the story shown in each cards to study cogni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for the affec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Then the subject was asked to tell the feeling of the hero in the story and to select one of the four facial express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eeling.

The cogni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affec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response were coded three kinds of scoring respectively.

Scored data were analyzed with M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s and Fisher-z test.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 :

First, both Orphanage and Normal Children's the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increased with age.

Secondly, both Orphanage and Normal Children's perspective-taking ability was lower than Normal Children's perspective-taking ability.

Thirdly, both Orphanage and Normal Children's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increased with ag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망수용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Damon, 1975). 이러한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며, 타인의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정서 조망 요소와 타인의 생각, 지식, 견해, 느낌을 추론 평가하는 인지조망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조망수용능력은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온 사회인지 영역의 연구로 시각조망(visual perspective-taking), 인지조망(cognitive perspective-taking), 정서조망(affective perspective-taking)의 발달에 관한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중 시각조망은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없으나, 인지조망과 정서조망의 획득은 대인 관계에 대한 아동의 행동 발달 면에서 재인식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생각, 지식, 견해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에 관련된 연구에서 Kurdek와 Rodgon(1975)은 Piaget와 Inhelder의 7세 이후에 자아중심성을 벗어나야 조망수용능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나, Garvey와 Hogen(1973)은 3-4세 어린이도 인지조망 과제의 상황 설정이 아동에게 친숙하거나, 언어 능력의 통제 과정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명확히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정서상태를 평가하는 능력으로 Kurdek와 Rodgon(1975)은 Piaget와 Inhelder(1956)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으나, Borke(1972)는 과제의 친숙성, 반응의 용이성에 따라서는 3세 정도의 유아들도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발달 경향에 관한 이러한 조망수용능력의 연구들이 종래에는 지각, 정서, 인지 등의 요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망수용능력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았거나(Piaget과 Inhelder, 1956), 정서적, 인지적 요소들을 따로 분리하여 각 요소에 있어서의 조망수용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Borke, 1972; Denham,

1985; 서봉연, 1987).

이에 관한 연구로 Masangkay(1974)와 Johnson(1975)은 정서와 인지의 두 요소 중 하나의 요소를 연구하여 다른 한 요소를 유추하여 설명하고, Denham(1976), Mossmer와 Greeberg(1976)는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정서와 인지의 요소를 다루기는 했으나 대부분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서적 과제와 인지적 과제를 달리 사용하여 두 과제의 측정 결과로서 그 두 요소간의 발달 경향과 관계성을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가 다차원적 조망수용능력의 측정에 문제점을 나타내므로, 동일 과제를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및 인지의 두 요소를 함께 측정하여 아동의 조망수용능력 발달 경향에 있어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며, 또 두 요소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 정진, 1991).

연진영(1987)은 부모와의 친밀도를 중요한 하나의 변인으로 지적하여,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높은 조망수용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친밀도가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때,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재소, 빈곤 등의 이유로 격리된 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제공받아야 될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지도가 부적절하고 결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높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조망수용능력을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 사회부 통계(1991)에 의하면 전국 277개소의 시설에 25,897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 중 육아 시설은 261개소이며, 22,535명이 수용되어 있다. 시설아동은 연고자와 개인적 접촉이 없거나 부족하고, 집단 생활이므로 부모와의 높은 친밀도가 형성되지 못하며, 애정적 지원이나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결핍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는 시설 아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가정환경과는 달리 물리적, 심리적으로 실조된 환경적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시설아동은 전반적으로 개념형성이나 추리 또는 추상적 사고가 낮고(김성태, 1984), 적절한 modeling 대상이 부족하여 역할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성 발

달에 상당한 지체 현상을 가져온다(차행자, 1988)고 보고 있다. 또한 시설아동은 어머니와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경적 자극의 빈곤과 양육 행위의 결핍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낮은 인지발달 수준을 나타내고, 인성발달에 부정적 경향을 나타낸다(김성천, 1991)고 보고 있다. 시설아동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와의 친밀도가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조망수용능력이 높은 아동이 적용된 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로 비추어 볼 때,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조망수용능력의 발달 경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과제 내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 경향성이 어떠한지와,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설에서의 양육이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 경향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밝혀 보고,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에서 조망수용능력의 정서적, 인지적 요소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유형별(기쁨, 슬픔, 분노)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유형별(기쁨, 슬픔, 분노)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연령과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유형별(기쁨, 슬픔, 분노)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시설아동의 특성

시설아동이란 부모가 아동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 부모를

전적으로 대리하여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시설아동은 그들의 가정적 기능을 대행해주는 시설환경이 일반 가정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이라는 환경은 일반 가정 환경과는 달리 특수한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시설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문화적으로 실조된 환경이므로, 언어 발달, 감각 발달 등 아동의 발달을 자극시킬 만한 지적, 물적 경험이 부족하다(조은미, 1984).

Rogers(1961)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모와의 사이에서 충족된 애정 관계를 경험할 때 가치적인지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고, 시설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충족된 애정 관계를 대행해 줄 시설 보모 등과의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석산(1984), 장인협(1986)은, 우리나라의 보모·아동의 비율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할때 아동과 보모와의 충족된 애정 관계 형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시설에 종사하는 보모 등의 높은 이직율로 인해 시설에서 성장된 아동은 모정 혹은 부정 상실과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경희(1974)는 이러한 시설의 일관성이 없는 보살핌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됨을 지적하였고, 연진영(1987)은 시설은 대부분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핍된 시설속에서 양육된 아동은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이나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가 어렵고,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지적 활동,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적응면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시설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시설이라는 환경은 일반 가정 환경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만드는 일이 어렵게 되어 자아의 발달이나 personality 형성이 저해되므로, 성인이 되기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 관계로 구성된 곳이 아닌 시설이라고 하는 환경적 특수성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보호가 가장 필요한 3세에서 18세의 아동

및 청소년이다. 이러한 연령층에 형성된 성격이 성인기를 좌우한다고 볼 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모와의 분리 경험 및 결핍된 시설속에서의 양육은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과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시설아동의 인성 발달에 있어 부정적 경향은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에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2. 조망수용능력

Flavell(1975)은 "조망수용능력이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타인의 눈으로 통해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라 했고, Selman(1980)은 "조망수용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사회-심리적 조망들을 조정하는 능력"이라 하며, Hoppe(1987)는 "조망수용능력이란 아동이 자기의 심리적 관점과 타인의 심리적 관점이 어떻게 해서 조정되는가 그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Iannotti(1985)는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사고, 동기까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조망수용능력이란 자기와 타인의 심리적 조망들을 구별하고 양자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아동이 자기 자신만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황 및 느낌 등을 이해하여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iaget은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은 자기중심성과 관련이 있으며,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은 아동이 자기중심성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탈중심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조망수용능력은 Piaget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7세 이전의 아동에게서 획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또 다른 견해로 Selman(1980)은 6세의 유아도 타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관점에 있어서 자신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elman(1980)은 조망수용능력 발달의 5단계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자기중심적 조망수용(Undifferentiated and egocentric perspective-taking) 단계

로 아동이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주관적 관점과 타인의 관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주관적 조망수용(Undifferentiated and subjective perspective-taking) 단계로 아동이 사람의 행동은 주관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갖고, 자기자신의 주관적 조망과 타인의 주관적 조망이 명확히 변별되어, 그 조망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인식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자기반성적 조망수용(Self-reflective/second-person and reciprocal perspective-taking) 단계로 아동이 타인의 관점에 대한 조망수용을 하면서, 자신의 관점이 타인의 조망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제 3 자 조망수용(Third-person and mutual perspective-taking) 단계로 아동이 자신과 상대방들간의 관계의에 제3자의 객관적 관찰자 관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상호적 조망수용 단계이다.

제 5 단계는 심층적, 사회적 상징적 조망수용(In-depth and social-symbolic perspective-taking) 단계로 자신의 관점이 타인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개인이 공유하는 사회적 관습적 조망들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s)이나 사회적 체계에서 공유되는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이다.

Selman의 1 단계는 6,7세 이전의 아동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Piaget의 주장과는 유아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등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수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Selman의 주장은 이후 많은 후속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다 (Borke, 1973; Deutsch, 1975; 유희정, 1988).

또, Borke(1972)는 Piaget와 Inhelder의 실험에서 9세이전의 아동이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 것을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인지 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조망에 대한 이해를 재현하거나 전달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세의 유아에게서도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을 시사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고, Deutsch(1975)도 제시되는 이야

기의 친숙도를 고려해주면 3,4세의 유아에게서도 타인에 대한 정확한 조망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보아 조망수용능력은 연구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과의 관계

1) 정서적 조망수용능력

정서적 조망수용능력(affective-taking ability)은 자신의 느낌을 기초로 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 반응, 관심을 추론 평가하는 것(Underwood & Moore, 1982)이다. 또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능력(Kurdek & Rodgon, 1975) 즉,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신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과정인, 정서적 측면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태도 등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Feshbach와 Roe(1968)의 아동용 척도인 A.S.T(Affective Situation Test)가 국민학교 저학년과 유아의 정서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A.S.T는 4장의 그림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본 후에, 느낌을 물어서 아동의 대답과 이야기속 인물의 정서 상태가 같으면 점수를 얻게 되어 있다.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연령, 성별, 부모와의 친밀도 등이 주요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아동이 3-4세 경이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나타나지만 두려운 것에 대한 조망은 다소 늦게 이루어진다(서봉연, 1987)고 했고, 4세경이면 타인의 기쁨을 이해하게 되고 4-7세경 사이에는 타인의 공포, 슬픔, 분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했다(김재은, 1990).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를 생리적 반응으로 측정한 Berman(1980)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Shimanoff(1980)의 연구에서도 성차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 부모와의 친밀도를 들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유

도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필수적 요인으로 특히, 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애정적 지지를 받을 때 아동의 정서발달은 촉진된다(김영순, 1985; 연진영, 1987)고 한다.

이렇게 정서적 측면에서의 조망수용능력을 살펴볼 때, 연령에 따라 증가되는 아동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은 6세 이전에도 나타나고,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부모와의 친밀도 또한 조망수용능력 발달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주요한 변인중의 하나이다.

2)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인지적 조망수용능력(cognitive perspective-taking)이란 타인의 생각, 지식, 견해 등을 추론 평가하는 능력으로(Kurdek & Rodgon, 1975), 특정상황에서 타인의 지식 정도나 사고, 전략, 그 밖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와 다른 타인의 관점을 추리하여 평가함으로써 인지적 측면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와같은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관한 종래의 견해에 따르면 7세 이전의 아동은 인지적으로 무능하며 탈중심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인지적 조망수용능력도 결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연구(Broke, 1973 ; Landry & Ruth, 1980)들은 6-7세의 아동들도 타인의 사고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조망수용능력이란 흔히 역할수용(Role-taking)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쓰여지고있다. 이러한 이유는 조망수용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 등이 축적되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Bar-Tal의 연구 결과에서 아동은 어린시기부터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할 수있지만, 그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 이것은 아동이 점차로 사회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과 교섭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타인 접촉의 경험의 증가에 따라 타인이 어떤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며,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Innotti(1985)와 배선호(1983)의 인지조망수용능력과 나눠주기 행동간의 관계 연구에서 이 두가지의 상관성은 높다고 했고, 문희영(1984)의 5,6세 아동을 대상으로한 정서조망능력과 나눠주기 행동관계연구에서도 두 변인간

의 의의있는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즉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은 친사회적 행동을 잘 수행하게 하고, 이는 아동의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관계

조망수용능력에 관한 종래의 선행 연구들에서 정서와 인지는 상호작용이 없는 각각의 특성을 지닌 개별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정서와 인지의 두 요인을 함께 고찰해서 상호 연계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아동발달연구에 대두되었다.

즉, 조망수용능력의 연구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상호관련이 없이 다만 단계적 발달과정이라고 주장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 경향은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동일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의 관련적 발달을 한다고 보고 있다.

Piaget의 견해에 의하면 정서는 인지와는 달리 정서 자체의 구조나 발달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일련의 도식으로 표현했으나 궁극적으로 정서와 인지는 양분된 측면이 아닌 단일 측면으로서 둘은 상호관계를 갖고 작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Geneep(1987)는 타인의 정서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은 사회적 민감성(social sensitivity)의 주된 요인이 되며,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적 정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정서를 추론해보는 경우이고 둘째,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타인의 독특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 즉, 개인적 정보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정서추론의 기저는 조망수용능력에 있는 것으로 타인의 정서추론은 정서적, 인지적 요소가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김 정진, 1991 ; Zajone, 1980)는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상호관련성을 갖고 함께 발달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통합적 연구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Rubin(1978)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3, 5학년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적 조망과제와 정서적 조망과제의 연구에서 인지와 정서의 두 영역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고, 김정오(1982)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3학년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두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표현한 6장의 그림이야기 연구

에서 인지적 조망과 정서적 조망의 분화가 의의있는 상호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했다. 김정진(1991)은 4, 6,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조망수용능력 발달과정에서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상호연관이 되어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때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상호관련이 되어 비슷하게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부산시내의 1개 유치원, 2개 국민학교, 5개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설아동으로는 부산시내 영도구의 C, 해운대구의 E, 금정구의 I, N, 동래구의 S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가정아동으로는 부산시내 북구의 T 유치원, 해운대구의 D 국민학교, 남구의 E 국민학교에서 무선으로 선정했으며, 남녀 일반아동 만 5세 32명, 만7세 32명, 남녀 시설 아동 만5세 32명, 만7세 32명의 총 128명의 아동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집단별, 성별,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시설아동		일반아동		계	평균연령
	남	녀	남	녀		
만5세	16	16	16	16	64	5년 4개월
만7세	16	16	16	16	64	7년 8개월
계	32	32	32	32	128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Feshbach & Roe(1968)가 사용했던 조망수용능력 과제인 A.S.T(Affective Situation Test)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예비 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구성은 기쁨, 슬픔, 분노의 세가지 정서유형에 따라 각 2가지씩의 이야기가 제시되는데, 각각의 이야기는

총4개의 그림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된다. 각 정서는 2가지씩의 이야기가 제시되는데, 기쁨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생일 잔치를 하는 내용과 어린이날 대공원에 가는 내용이고, 슬픔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친한 친구와 헤어지는 내용과 아파서 소풍을 못가는 내용이고, 그리고 분노의 내용은 주인공이 공을 빼앗기는 내용과 소꿉놀이를 방해받는 내용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각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림들은 모두 13cm X 13cm의 동일한 크기의 흰색 카드에 천연색 그림을 그려서 작성하였다. 또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얼굴 표정 그림들은 13cm X 13cm의 흰색 카드에 천연색으로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 무표정한 얼굴의 4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연구 도구의 각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은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측정은 .80에서 .91이고,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측정은 .75에서 .81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1차 예비 조사는 만7세 아동으로 부산시내 금정구의 H 시설의 시설아동 20명과, 남구 C 국민학교의 일반가정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경우에 기쁨, 슬픔, 분노의 정서를 느끼는가를 각각 3가지씩 적도록 조사한 후,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이 각 정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항을 선정하여 이야기 과제외의 도구로 작성하였다.

1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도구로 만5세의 시설아동과 일반아동 각 6명씩 12명과 만7세의 시설아동과 일반아동 각 6명씩 12명의 총 24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이야기 과제는 2가지씩 각각의 이야기는 총4장의 그림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2차 예비 조사 결과 만5세아의 경우, 이야기 상황으로 제시된 과제를 이해하는데 문제를 나타내어 3차례에 걸쳐 내용의 수정을 한 후 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사의 도구로 확정하였다. 또한, 정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표정 그림의 제시에서도 만5세 아동의 경우 정서 상태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2차례에 걸쳐 수정한

후, 10명의 아동에게 재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수정된 그림을 본 조사의 도구로 확정하였다.

2) 본 조사

본 연구는 개별 연구로 동일 과제내에서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과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였고, 연구에 참가한 각 아동의 실험 소요 시간은 만5세 아동이 약 20-23분 정도, 만7세 아동이 약 15분-18분 정도로 평균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절차는 우선, 한사람씩 들어오게 하여 마주 앉은 다음, 아동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 기록지에 기입한 후, 아동의 낯설음과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간단한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다.

다음, 각각의 아동에게 기쁨, 슬픔, 분노에 대한 정서를 유발시키는 상황의 그림이야기 과제를 보여주고, 연구자는 아동에게 2가지의 질문을 한다.

먼저,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들려준 다음, 방금 들은 이야기를 아동 자신이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묻는다. 즉, “자, OO(피해자의 이름)야, 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니? 한번 해봐라”하고 묻는다.

이에 대해 아동이 이야기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빠뜨리지 않고 이해하여 전달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의 언어적 반응을 기록지에 기록한다.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같은 그림이야기에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아동이 그림이야기 과제를 보면서 상황에서 유발된 정서를 추론하여 언어로 이야기하게 한 다음, 그것에 해당하는 정서적 표현의 얼굴 표정을 그림중에서 고르게 하는 것으로, 먼저 “주인공 OO의 기분이 어떨겠니?”라고 물어서 아동이 주인공의 정서 상태를 언어반응으로 바르게 대답하는가를 보고 기록지에 기록한 다음, “주인공 OO의 기분을 표정으로 골라 보겠니?”하여 언어적 반응으로 대답한 정서와 맞는 얼굴 표정을 고르는지를 기록한다.

그림카드 제시는 순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순서는 무선으로 제시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1) 자료 처리

본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반응측정은 3단계로 나뉘어진 점수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별 점수화는 자아중심적인 반응의 단계는 가장 낮은 1점, 부분적 정반응의 단계는 2점 그리고 완전한 정반응의 단계는 3점이었다. 아동의 언어적 보고에 대한 반응의 측정인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각각의 과제는 1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기쁨, 슬픔, 분노의 각 정서에 대해 2가지씩의 이야기 과제가 제시되므로 각 정서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최저점은 2점이고, 최고점은 6점으로 산출된다. 반응 측정이 다른 아동의 언어적 보고에 대한 점수가 정확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언어적 보고를 점수화시키고, 또 다른 조사자가 다시 한번 점수화하였다. 이때 채점자간 일치도는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서 98%,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에서 98%였다. 반응 측정에 따른 점수화 단계는 <표 2>와 같다.

<표 2> 반응 측정에 대한 점수화

단계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정서적 조망수용능력
1	자아중심적인 반응	자아중심적인 반응
2	부분적 상황만 이해	부분적인 정반응
3	전체 상황을 이해	완전한 정반응

<표 2>의 반응측정에 대한 단계화를 Selman(1980)의 조망수용능력발달의 5단계와 비교한다면 반응측정의 가장 낮은 단계는 Selman의 1단계와 2단계는 Selman의 2,3단계, 3단계는 Selman의 4단계이상에 해당된다 고 볼수있다.

2) 분석

연구를 위해 측정된 자료는 SPSS Program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문제 1과 2 를 검증하기 위하여 MANOVA를 적용하였고,

집단간 비교는 t-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3 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 상관계 수와 Fisher-Z검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1. 연령에 따른 정서유형별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아동의 연령별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 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령별 정서유형별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정서유형	정서적 조망수용능력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M	SD	M	SD
만 5세 (64)	기쁨	5.00	.67	4.25	.47
	슬픔	4.73	.93	4.17	.86
	분노	4.36	.48	4.16	.44
만 7세 (64)	기쁨	5.80	.41	5.84	.37
	슬픔	5.27	.65	5.55	.59
	분노	5.51	.59	5.56	.59

()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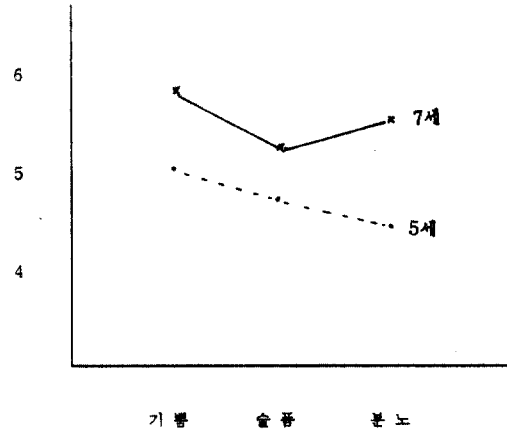
<표 3>에서 기쁨, 슬픔, 분노의 정서유형별 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 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 보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경우, 만 5세 [기쁨(M=5.00), 슬픔(M=4.73), 분노(M=4.41)] 만 7세 [기쁨(M=5.80), 슬픔(M=5.27), 분노 (M=5.51)]로 증가했고,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의 경우, 만 5세 [기쁨(M=4.25), 슬픔 (M=4.17), 분노(M=4.16)] 만 7세 [기쁨 (M=5.84), 슬픔(M=5.55), 분노(M=5.56)]로 증 가했다.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 보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 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변 량분석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되었 다.

<표 4> 연령과 정서유형에 따른 정서적 조망 수용능력의 MANOVA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연령	65.84	1	65.84	125.03 ***
오차	66.35	126	.53	
집단내				
정서유형	16.01	2	8.00	22.48 ***
연령×정서유형	6.30	2	3.15	8.85 ***
오차	89.70	252	.36	

*** p<.001



<그림 1> 정서적 조망 수용능력에서의 연령과 정서유형의 상호작용효과

<표 5> 연령과 정서유형에 따른 인지적 조망 수용능력의 MANOVA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연령	204.17	1	204.17	557.35 ***
오차	46.16	126	.37	
집단내				
정서유형	3.00	2	1.50	4.76 **
연령×정서유형	.09	2	.45	1.42
오차	79.44	252	.32	

** p<.01 *** p<.001

<그림 1>에서의 상호작용효과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6>에서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연령간 t-검증을 한 결과, 기쁨, 슬픔, 분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정서유형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기쁨과 슬픔의 정서유형보다는 분노의 정서유형에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의 변량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은 연령의 주효과 [F(1,126)=125.03, p<.001]와 정서유형의 주효과 [F(2,252)=22.48, p<.001], 그리고 연령과 정서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F(2,252)=8.8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과 관계없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에서 정서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이를 검토한 결과 기쁨(M=5.40)의 정서유형이 가장 높고 슬픔(M=5.00)과 분노(M=4.86)의 정서유형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정서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던 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6>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연령간 t-검증

정서유형	연령	M	SD	t
기쁨	만 5세	5.00	.06	8.17***
	만 7세	5.80	.41	
슬픔	만 5세	4.73	.93	3.75**
	만 7세	5.27	.65	
분노	만 5세	4.36	.48	12.12***
	만 7세	5.51	.59	

p<.01 *p<.001

다음 <표 5>의 변량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정서유형별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연령의 주효과[F(1,126)=557.35, p<.001]와 정서유형의 주효과 [F(2,252)=4.67, p<.01]가 나타났으며, 연령과 정서유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즉,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증가하며, 또한 연령과는 관계없이 정서유형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쁨(M=5.10)에 대한 정서유형이 가장 높고, 슬픔(M=5.00)

과 분노(M=4.8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유형별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아동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환경별(시설, 일반가정)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정서유형별 환경별(시설, 일반가정)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유형	환경	정서적 조망수용능력		인지적 조망수용능력	
		M	SD	M	SD
기쁨	일반아	5.55	.59	5.11	.89
	시설아	5.25	.73	4.98	.91
	계	5.39	.67	5.05	.91
슬픔	일반아	5.30	.61	4.98	.98
	시설아	4.70	.94	4.73	1.03
	계	5.00	.84	4.86	1.00
분노	일반아	5.02	.85	5.00	.91
	시설아	4.86	.73	4.72	.83
	계	4.94	.79	4.86	.88

<표7>에서 기쁨, 슬픔, 분노의 정서유형별, 일반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시설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경우, 일반아동은 기쁨(M=5.55), 슬픔(M=5.30), 분노(M=5.02), 시설아동의 기쁨(M=5.25), 슬픔(M=4.70), 분노(M=4.86)로 나타났다.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경우, 일반아동은 기쁨(M=5.11), 슬픔(M=4.89), 분노(M=5.00), 시설아동은 기쁨(M=4.89), 슬픔(M=4.73), 분노(M=4.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변량분석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8> 환경(시설, 일반가정)과 정서유형에 따른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MANOVA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환경	11.69	1	11.69	12.22 ***
오 차	120.49	126	.96	
집단내				
정서유형	16.01	2	8.00	21.73 ***
환경×정서유형	3.19	2	1.60	4.33 *
오 차	92.80	252	.37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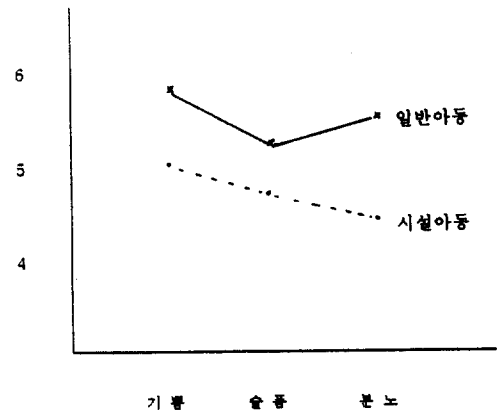
<표 9> 환경(시설, 일반가정)과 정서유형에 따른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MANOVA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환경	4.59	1	4.59	2.36
오 차	245.73	126	1.95	
집단내				
정서유형	3.00	2	1.50	4.73 **
환경×정서유형	.44	2	.22	.69
오 차	79.90	252	.32	

** p<.01

환경별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은 <표 8>의 변량분석결과에 의하면, 환경의 주효과 [F(1.126)=12.22, p<.001], 정서유형의 주효과 [F(2.252)=4.33, p<.001], 환경과 정서유형의 상호작용효과 [F(2.252)=4.3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환경과 정서유형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 환경별(시설, 일반가정)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상호작용 효과

<표 10>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환경간 t-검증

정서유형	연령	M	SD	t
기쁨	일반아	5.55	.59	2.52*
	시설아	5.25	.73	
슬픔	일반아	5.30	.61	4.25***
	시설아	4.70	.94	
분노	일반아	5.02	.85	1.12
	시설아	4.86	.73	

*p<.05 ***p<.001

<그림 2>에서의 상호작용효과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0>에서 정서유형별 조망수용능력을 환경간 t-검증한 결과, 정서유형별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서 환경별 주효과의 차이는 기쁨과 슬픔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분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기쁨과 슬픔에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은 시설아동에 비해 일반가정아동이 높고, 이를 <그림 2>와 비교할 때 특히 기쁨이나 분노보다는 슬픔의 정서유형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시설아동보다는 일반아동이 더 크다.

환경별 정서유형별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표 9>의 변량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유형의 주효과만 [F(2.252)=4.73, p<.01] 유의하게 나타났고 환경의 주효과와 정서유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써 환경에 따른 각 정서유형별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정서유형별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 따라 연령과 환경과의 상호작용효과가 기대되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변량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과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관계

아동의 연령별, 환경별(시설, 일반가정)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령과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Pearson 상관관계

연령	정서유형	환경	상관계수
만 5세 (64)	기쁨	일반아	.71 **
		시설아	.70 **
	슬픔	일반아	.61 **
		시설아	.89 **
	분노	일반아	.73 **
		시설아	.55 **
만 7세 (64)	기쁨	일반아	.99 **
		시설아	.78 **
	슬픔	일반아	.78 **
		시설아	.68 **
	분노	일반아	.84 **
		시설아	.73 **

** p<.01 () 인원수

<표 12> 정서유형과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따른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Pearson 상관계수

정서유형	환경	상관계수
기쁨	일반아	.82 **
	시설아	.81 **
	계	.82 **
슬픔	일반아	.54 **
	시설아	.86 **
	계	.69 **
분노	일반아	.93 **
	시설아	.83 **
	계	.88 **

** p<.001

전체 조사 대상자별로 볼 때, 각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동은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이 상호 병행하여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다시 <표 11>에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설아동의 슬픔의 정서유형만을 제외하고 시설아동, 일반아동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쁨과 분노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관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표 12>의 결과 환경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상관은 .54에서 .93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기쁨과 분노의 정서유형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관은 높다.

이때, 정서유형에 따른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상관이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isher-Z검증을 한 결과 환경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망수용능력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쁨, 슬픔, 분노의 각 정서유형별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Piaget(1970), Denham(1986), 김정진(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을 보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인지적 조망수용능력보다 조금 앞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보다 조금 앞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보다 많이 증가한다. 이는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경우 2세 정도의 유아에게서도 나타났듯이(Broke, 1972) 일찍 획득되어 발달하는 반면,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아동이 어느정도 사고체계나 지식체계가 형성된 다음에 획득되는 능력이라는 Piaget(1970), Kurdek(1977), 김정진(1991)의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모두 슬픔이나 분노의 정서유형 보다는 기쁨의 정서유형이 가장 빨리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쁨에 관한 조망수용능력을 정서적, 인지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더 일찍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쁨에 관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가장 일찍 나타난다는 결과(Denham, 1986 ; 김정오, 1988 ; 김정진, 1991)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쁨, 슬픔, 분노의 정서유형에서 정서

적 조망수용능력이 증가하는데, 특히하게 기쁨이나 슬픔보다는 분노의 정서유형에서 더 많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시설아동의 각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은 일반가정아동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시설아동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어려우며,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가 어렵고,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적응성이 낮다는 선행연구(연진영, 1987 ; Salts, 1973)로 미루어 볼 때,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정서적 발달경향이 낮을 것이라는 데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부모와 친밀한 유대관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인한 애정적 결여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경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설이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실조된 특수한 환경이 아동의 개념적, 추상적 사고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유미숙, 1980 ; 전상혜, 1984)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즉, 시설이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만으로 볼 때, 아동의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경향이나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유형별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에서 시설아동보다는 일반가정아동이 기쁨이나 분노보다는 슬픔의 유형에 관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더 높다.

셋째,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호관련성은 시설아동의 슬픔의 정서유형만을 제외하고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과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관계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Denham, 1986 ; 김정오, 1982 ; 김정진, 1991)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망적 사고가 단일차원이라고 가정했던 Piaget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 선행연구(김정오, 1982)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환경(시설, 일반가정)에 의해서도 각 정서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특이하게 시설아동의 기쁨이나 분노의 정서유형에 관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관성은 일반가정아동보다 낮으나, 시설아동의 슬픔의 정서유형에 관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관성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연령차로 볼 때, 기쁨이나 분노의 정서유형에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관성은 일반가정아동과 시설아동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시설아동의 슬픔의 정서유형에서만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관성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와 5세 시설아가 슬픔에 대한 정서유형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관성이 특히 높다는 앞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시설아동은 슬픔이라는 정서유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반아동보다 더 일찍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연령이 증가하면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시설, 일반가정)의 연령(5세, 7세)이 증가함에 따라 기쁨, 슬픔, 분노의 각 정서유형별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은 점차 증가한다. 또한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은 모두 인지적 조망수용능력보다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먼저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에서 기쁨의 정서유형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쁨이나 슬픔보다는 분노에 관한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더 많이 증가한다.

둘째, 시설아동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은 일반가정아동의 정서적 조망수용능력보다 낮으나,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시설아동보다는 일반가정아동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더 높고 이러한 차이는 기쁨이나 분노보다는 슬픔의 정서유형에서 더 크다.

셋째,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인

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호관련성은 시설아동의 슬픔에 관한 정서유형을 제외하고는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 모두 기쁨, 슬픔, 분노 모든 정서유형에서 증가한다. 특히, 시설아동의 기쁨과 분노에 관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호관련성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낮으나, 슬픔에 관한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상호관련성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높다.

참 고 문 헌

김석산, 육아시설아동의 입소원인 분석을 통한 가정복귀 가능성에 관한 연구. 숭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성천, 시설청소년을 위한 성장 집단 상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 : 법문사, 1978.

김영순, 어머니의 육아방식과 아동의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김재은, 아동의 인지발달, 서울 : 창지사, 1990.

김정진,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배선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타인중심적 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서봉연,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7.

연진영,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유희정, 유아의 조망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의 관계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이경희,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학연구, 서울: 대한가정학회, 1974.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조은미, 시설아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차행자, 시설아와 정상가정아의 도덕성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1991, 12.

- Borke, H. Internati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c landscape. Developmental Psychology, 7, 104-106, 1972.
- Damon, V. Early conceptions of positive justice a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ogical operations. Child Development, 46, 301-31, 1975.
- Feshbach, N. L., & Roe, K. "Empathy in six- and seven-year-old", Child Development Vol. 39, pp 133-145, 1968.
- Flavell, J. H., Botkin, T. P., Fry, C. L., Wright, J. W., & Jarvis, P. E. The Development of Role-ta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ren. New York : Huntington, 1975.
- Garvey, C., & Hogan, R. Social Speech and interaction : Egocentrism revisited. Child Development, 44, 563-569, 1973.
- Iannotti, R. J.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1985.
- Kurdek, L. A., & Rodgon, M.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th 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43-650, 1975.
- Landry, M. O., & Ruth, K. L. Recursive Structure in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Child Development, 51, 386-394, 1980.
- Masangkay, Z. S., McCluskey, C. W., Sims-Knight, J., Vaughn, B. E. & Flavell, J. H. The early development of influences about the visual percepts of others. Child Development, 45, 496-498, 1974.
- Piaget, J., Piaget's Theory. In P.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1. N.Y: Willey, 1970.
- Piaget, J., & Inhelder, B. The Child's Conception of Space. London : Routledge & Kagan Paul, 1956.
- Rogers, C. R.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1.
- Selman, R. L.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 Underwood, B. and Moore B. Perspective 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2, pp. 143-173, 1982.
- Urberg, K. A., & Docherty, E. M. Development of role-taking skill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8-203, 1976.
- Zigler, E. & Dolla, D. Developmental course of responsiveness to social reinforcement in normal children and institutionalized retard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72, 6, pp. 66-73, 1977.